

번역교수의 목표와 번역능력습득에 대한 이론적분석

조영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과학을 발전시켜야 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교육사업을 높은 과학적도대우에 올려세울수 있으며 교육의 수준과 효과를 빨리 높일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0권 492페이지)

번역교수에서 달성하여야 할 목표와 학생들의 번역능력습득과 관련한 이론적연구를 진행하는것은 번역교수의 방향을 명백히 제시하고 학생들의 번역능력습득의 효과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번역교수에서 학생들에게 번역능력을 효과적으로 체득시키기 위한 방법론적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이 글에서는 번역교수의 목표와 번역능력습득과 관련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자료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번역교수의 목표에 대한 리론들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번역교수의 목표에 대한 리론들에는 교제적번역능력을 체득시키는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리론들이 제기되였다.

도날드 키탈리는 도서 《교제능력을 위한 역할과 번역원양성에서 습득과 학습의 차이》(1990년)에서 교제적번역능력이란 교제적번역과제의 적극적인 참가자로서 교제를 알맞게 그리고 원만하게 할수 있는 능력 다시말하여 과제의 요구와 목표어문맥에 알맞는 번역물을 내놓기 위하여 원어본문과 그 문맥, 번역과제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 과정의 참가자들(원문작가, 번역자, 번역물의 독자 등)과 교제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것은 번역자는 번역물의 독자들이 원문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리해할수 있도록 번역을 함으로써 원문작가와 번역물 독자들사이의 원만한 교제를 보장할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번역능력은 이외에도 모국어와 외국어에서의 개별적인 교제능력과 문화적 및 언어호상간의 교제능력을 요구하는 특별한 교제능력이라는 점이 언급되지 못하였다.

로저 벨은 도서 《번역과 번역행위》에서 번역자의 교제능력을 번역자가 소유한 지식과 능력으로서 번역자로 하여금 문법적으로 정확할뿐아니라 사교적으로도 알맞는 교제행위인 담화를 창조할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외국어습득리론에서는 교제능력을 의미를 해석하고 표현하며 절충할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있다. 여기서 절충이라는 말은 외국어에서 해당 단어에 정확한 대응어가 없는 경우 류사한 의미를 가진 표현을 쓰는것을 말한다.

싸비그논은 도서 《교제능력: 리론과 교실활동》에서 교제능력이 4가지 능력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였다.

- 문법적능력(언어구조와 형식에 대한 지식)
- 담화능력(문장들과 말어들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연관성과 의미적전일성의 규칙에 대한 지식)
- 사회언어학적능력(교제규칙에 대한 지식; 말차레바꾸기, 사죄를 하는데서 적합한 형식, 알맞는 청원 등)

— 활용능력(소유하고있는 언어를 최대한 활용할줄 아는 능력)

그러면 의미의 해석과 표현 그리고 절충이 번역과제수행과 어떤 련관이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번역자는 원문의미의 해석과 과제의 요구, 목표어관습에 따르는 의미절충과 표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다시말하여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번역자는 원문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목표어로 그것을 표현하며 원어와 목표어의 언어적 및 문화적집단들사에서 그것을 절충하여 과제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번역자의 작업은 교제목적에 따라서 진행된다. 즉 번역의 교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원문의 내용들을 목표어독자가 이해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례로 어떤 말을 제3자에게 전달해달라고 누군가가 부탁하는것을 생각해보자.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교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즉 부탁을 한 그 사람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번역자는 번역과제수행에서 이와 비슷한 교제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의미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난관이 더 있을 뿐이다.

선행한 연구성과들은 서로 다른 언어들사이에 교제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진행되는 번역에서 효과적으로 리용될수 있다. 이로부터 그러한 번역을 교제적번역이라고 한다.

교제적번역의 개념은 의미의 번역과 기능적으로 대응된다. 교제적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것은 그것이 외국어습득과 같은 련관분야에서의 활동과 더 밀접하기때문이며 또한 번역의 목적으로서의 교제를 강조하기때문이다.

그레고리 슈레브는 도서 《인지와 번역능력발전》에서 번역능력을 《문화적으로 구속되어있는 형식-기능구조를 재조직하기 위한 도식적구조》로 정의함으로써 번역능력에 대한 이전의 교제에 기초한 정의에 인지적측면을 보충하였다.

번역자의 머리속에서 진행되는 사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정의는 번역능력이 일련의 지식구조체들로 이루어져있다는것이다. 즉 번역자로 하여금 형식과 기능의 집합체들을 다른 문화의 형식과 기능의 집합체들(원문에서 제시된것과 같은 의미있는 언어적재료)로 재창조할수 있게 하는 련관된 사실들과 방법들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져있다는것이다.

교제에 기초한 번역능력에 대한 정의는 번역과제의 사회적문맥 즉 외적요인을 중시하지만 인지적정의들은 번역자를 개별적인간으로 보면서 내적인 요소를 중시한다. 사회적 및 인지적측면들은 다같이 번역능력에서 필수적이다.

교제적번역능력의 습득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문제들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 누가 교제적번역능력을 소유하고있는가?
- 번역자가 가지고있는 보조적능력들은 어떤것인가?
- 번역능력의 습득과 발전단계들은 어떤것들인가?
- 번역자는 한단계에서 다음 단계으로 어떻게 넘어가는가?
- 번역능력향상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가?

기디온 튜리는 도서 《일반번역과 모국어번역자의 번역》에서 모국어번역자에 대한 개념을 내놓았다. 언어를 습득할수 있는 천성적인 능력을 가진 어린이가 일정한 언어적 및 문화적환경속에 있게 되면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되듯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들사이로 전환할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과 두개 언어로 교제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번역자가 특정한 사회문화적환경에 있으면 두개 언어를 모국어와 같이 사용할수 있는 번역자로 된다는것이다.

두개 언어를 모국어와 같이 사용할수 있는 능력은 여러가지 보조능력들 실패로 어음론적, 문법적, 담화적 및 어용적능력들로 이루어져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번역능력습득에서 모국어번역자의 번역능력들과 보조능력들의 련관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교제적번역능력은 번역을 할수 있는 언어적능력, 번역에 필요한 지식, 번역방식결정 능력과 같은 보조능력들로 이루어진다. 번역지식은 번역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계에 대한 지식과 전문지식을 포괄한다. 번역방식결정능력은 교제적번역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언어능력과 지식을 규제한다.

다음으로 번역능력의 습득단계들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한개 언어 또는 두개 언어를 배우는 학생이 전문번역원이 되자면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가를 보기로 하자.

월프강 로처는 도서 《번역과 번역교수의 련관에 대한 과정분석연구》에서 번역능력습득에 3개의 기본단계들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로, 두개 언어를 배우는 어린이들속에서 보게 되는 초보적인 의미전달능력단계가 있다.

이 단계에서의 언어습득은 실제적인 교제문맥속에서 진행되며 두 언어사이에서 교제는 의미전달이 기본을 이룬다.

둘째로, 언어학습자의 의미전달능력단계가 있다.

이 단계에서의 언어습득은 형식지향적인 방법으로서 주로는 비교제적정황(인위적정황)속에서 진행되며 여기에는 모국어의 간섭과 외국어의 부분적능력이 포함된다.

셋째로, 전문번역원들의 의미전달능력단계가 있다.

이 단계에서의 언어습득은 주로 문형위주의 방법으로서 실제적인 교제정황속에서 진행되며 여기에는 두개의 보조언어능력이 포함된다.

여기서 두번째 단계는 부분적으로 외국어교수방법의 영향에 기인될수도 있다.

다음으로 번역기능의 향상에 기여하는 환경과 조건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번역능력과 보조능력들을 어떻게 습득하는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두개 언어소유자를 모국어번역자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하는가 그리고 튜리가 모국어번역자를 키우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특정한 사회문화적환경》과 《번역활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실천적으로 확증된 자료는 아직 없다. 모국어사용자들이 교제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교제능력을 가지게 되는것처럼 번역자가 교제적번역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교제적번역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할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것으로 증명되면 번역능력을 키우는 과정은 아주 오래고 느린 과정으로 될것이다. 이로부터 번역교수는 교제적번역과제들을 수행하는 기회를 보장해줌으로써 교제적번역능력습득을 쉽게 하면서도 촉진시키는것으로 되어야 할것이다.

번역능력의 습득을 용이하게 해주는 조건들에 대한 연구를 보다 깊이있게 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실에서 그러한 조건들과 체득과정에 알맞는 방법들을 창조하여야 한다.

이상의 연구자료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로, 번역교수의 목표는 마땅히 학생들에게 교제적번역능력을 체득시켜주는 것이며 교수를 여기에 지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학생들이 원문의 의미와 원문을 쓴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정확성이 보장되면서도 목표어의 어감과 미감에 맞는 번역문을 내놓음으로써 목표어독자들이 의미내용을 정확히 그리고 원만히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번역물이 교제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자면 학생들이 해당 언어와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언어에 대한 정확한 어휘문법적지식과 문장구조, 문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나라의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안받침될 때만이 원만한 번역문을 내놓을 수 있다.

셋째로, 번역교수에서 번역능력배양을 위한 순차와 단계를 바로 설정하고 알맞는 교수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번역문이 개별적인 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의 산물인것만큼 교제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정확한 번역문의 기준을 잘 설정하고 번역과정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오류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따라야 한다. 기성의 원문자료들과 번역문자료들을 대비번역하는것은 번역능력을 빨리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도로 된다.

우리는 번역리론과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을 실지 써먹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유능한 외국어인재로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